

경북동해안지역 경제일지

(2024년 2월중)

2. 26. ▶ 포항시, 청년 대상 연 최대 240만원 '월세 지원'

- 포항시는 지역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과 취·창업 및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해 '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'을 추진
 - 총사업비 8억6,300만원(국비 50%)을 투입해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
 - 지원대상은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~34세 무주택 청년이며, 30세 이상일 경우 청년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30세 이하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~60%이거나 원가구소득(부모 포함한 가구소득)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- 신청기간은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- 포항시는 2022~2023년중 총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705명의 지역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1차 지원한 바 있으며,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 지원을 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음

2. 16. ▶ 영덕군, 2025년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 50가구 공급

- 경북 영덕군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*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
-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, 청년,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

- 영덕군은 지역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거양식, 주택형태, 매입유형 등을 조사하여 지역 맞춤형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,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양질의 주택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
- 영덕군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까지 임대주택을 준공하고 연말까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

2. 5. ▶ 경주남산 문화재구역 해제로 37만여㎡ 규제완화 전망

- 경주시는 1985년 '문화재구역'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 일원 중 37만여㎡*가 문화재청 지정 예고를 통해 39년만에 해제되고 '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'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힘
- * 경주 탑동 석해골, 남산동 남리마을, 내남면 용장리 틈수골, 인왕동 해맞이마을, 통일전, 화랑교육원 등으로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 58.6개를 합한 크기
- 경주 남산 일대는 1985년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이래 문화재 보존과 주위 경관 보호를 위해 모든 사업행위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강한 행정규제를 받아왔음
- 이번 문화재청의 문화재구역 해제로 재건축·재개발 등 건축행위와 공공개발 사업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